

##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효과 분해: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

김석호\*\* · 신인철\*\*\* · 김병수\*\*\*\*

본 연구는 교육수준이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동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교육수준과 세계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교육수준에 따른 각 태도의 수준별 이행확률로 검증할 수 있는 순차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3개국이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교육계층별로 이행과정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원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각 국가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동일 교육수준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시사점이 제시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집단 간 경제적 경쟁에 근거한 접근보다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핵심단어:** 이민자, 이주노동자, 교육수준, 세계화 인식, 사회문화적 접근, 순차로짓모형

### I. 머리말

국가 간 노동력의 이동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결과가 국제적으로

\* 이 논문은 “2010 한국사회학회 전기학술대회”와 “2010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이 논문을 수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이윤석 교수와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께 감사드린다.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seokhok@skku.edu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원 | sheldon@skku.edu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교신저자) | kimb@hanyang.ac.kr

중요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외국 인력 유입에 따른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의 박탈과 임금하락의 우려가 커지면서 저숙련 노동력의 유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도 저숙련 외국 인력 수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이들에 대한 포용 문제에 있어서 유보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보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자국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경쟁우위가 낮은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임금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노동이주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명진·최셋별·최유정, 2010; 조동기, 2010). 노동이주의 역사가 한국보다 오래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내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교육수준 또는 직능수준의 영향력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Card 1990; Hunt 1992; Borjas 2003; Hartog and Zorlu 2005). 최근까지 지배적이었던 연구결과는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경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와의 직업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이민의 분배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에 기반하고 있다. 이 주장의 주된 근거는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직능수준을 반영하는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교육수준과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과연 이것이 경제학적 접근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적 경쟁의 위협 때문인 것인가를 재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임금, 고용, 실업과 같은 자국의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 이민이 갖는 효과는 크지 않고 단기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이나 외국문화에 대한 반감이 적으며, 인적 물적 교류의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물음을 통해 경제적 접근보다는 문화나 신념의 문제로 교육수준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Likata and Klein, 2002; Hainmueller and Hiscox, 2007).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의문은 과연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이나 외국문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지, 각 국가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동일한 교육수준 내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의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이하 EASS) 자료를 활용하여 세 나라 국민들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실제 교육수준 또는 직능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를 분석하고, 동일 교육수준 내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 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각각 다른 이민의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서로 다른 이민정책을 운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나라는 과거 한국이 일본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모방하거나 2004년 이후 대만의 고용허가제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리적 및 문화적 근접성 때문에 이주노동 정책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점과 공통점은 내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그 결정요인을 연구함에 있어서 국제비교의 훌륭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내국인의 이민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연구가 다양한 시각에서 진행된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연구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일본과 달리 한국과 대만이 외국으로 노동력을 보내는 송출국의 경향이 강하였고, 유입국으로의 부상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한국, 일본, 대만에서 어떻게 다른지, 국가별로 교육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동일한 교육계층 내에서 어떠한 변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이들 세 나라의 이민의 역사와 경험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한국, 일본, 대만의 이주노동 정책

한국은 단순기능인력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1992년부터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연수1년+취업2년)를 통해 외국 인력을 사실상 근로자로 사용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편법사용,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업계, 중소기업중앙회, 시민단체 등의 이견으로 인해 전면적인 단순기능인력 유치가 막혀 오다가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2007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8년 발표된 『제1차(2008~2012)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문인력, 투자자,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특히 우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치 및 국내정착을 장려하는 반면, 비전문노동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를 지양하는 정책기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저숙련 인력이 부족한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노동력 대체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내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버블경제에 의한 호경기 하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부족과 엔고현상에 의한 이주노동의 유인력이 증대됨에 따라 취업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단순노동분야에 종사하는 불법취업자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이혜진, 2009). 일본정부가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제도 등 다양한 이주노동자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능한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처한다'는 1988년 5월 '경제운영 5개년 계획'과 '단순노동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중히 대응한다'는 1988년 6월 '제6차 고용대책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기본 원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즉, '청장년 우선 고용', '저출산이 진행되더라도 2030년까지는 노동력이 급감하지 않는다'는 예측을 근거로 이주노동자로 인한 일본인의 고용기회 박탈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이구치 야스시, 2003). 이는 일본정부가 소위 단순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구치 야스시, 2003; 이혜진, 2009).

대만의 사업구조는 전통적으로 가족 소유의 중소기업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출 지향적 제조업체들이 저렴한 상품을 생산하는 중국본토와 동남아시아 회사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됨과 동시에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관리, 인적 서비스, 기술지원 및 상품 설계에 기초한 산업으로 점차 이동해가는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젊은층의 3D 업종에 대한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 노동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다(Kaneko, 2009). 이에 대만 정부는 1989년 공공건설부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후 1991년 민간 부문의 인력난으로 인해 이들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대만은 1992년에 입법된 취업서비스법을 근간으로 이주노동자를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제4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정책의 취지는 내국인의 일할 권리와 고용조건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사회안정을 유

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보완성'과 '비영속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유지해 오고 있다(첵치유, 2007). 2000년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진보당이 대만인들의 고용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을 정도로 이들의 유입에 따른 불법노동자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의 축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란커정, 2003). 이와 더불어 대만 국민들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와일라오(wailao, 外勞)라고 부르며 폄하하고 이들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Chen, 2003, 2010).

한국, 일본,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정책은 외국 인력의 독특한 계층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이주노동자정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이들 동아시아 세 나라의 외국 인력은 유럽과 북미국가로부터 유입된 고숙련 전문가, 엔지니어, 서비스 전문가와 관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외국 인력과 다른 저개발 아시아 국가출신의 저숙련 육체노동자로 분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Kaneko, 2009). 본 연구는 동아시아 세 나라의 국민들이 다른 저개발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비전문 기능인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국인들의 태도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하위계층에 속하는 저숙련 인력의 유입이 대세인 이들 사회에서는 서구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경제학적 접근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직능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 그 설득력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 가정한다.

## 2.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연구들

누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민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학 모형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산요소 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이민이 지역경제 내에서 생산요소의 상대적 공급에 미치는 영향력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숙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저숙련 노동공급의 증가를 의미하고, 단순한 폐쇄경제모형(closed economy model) 하에서 토지, 자본, 고숙련 기술 소유자의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저숙련자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 유입의 효과에 대한 모형은 흔히 요소비율이론(factor proportions theory)이라고 명명되는데,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분배 효과와 관련된 연구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민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을 미국선거조사(National Election Studies)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고숙련 내국인들은 저숙련 내국인들보다는 저숙련 노동인력의 유입을 더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cheve and Slaughter, 2001).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1995년 국가정책성 모듈과 1995-1997년에 수행된 제3차 WVS(World Value Survey)의 40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Mayda, 2006) 교육년수로 직능수준을 측정했을 때, 저숙련 내국인보다는 고숙련 내국인이 노동인력의 유입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실제로 폐쇄경제모형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민이 분배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반이주노동자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개인적 차원의 심리학적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실제 그러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경제학적 접근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무관심을 보완할 수 있는 설명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현실갈등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이다. 이 이론은 경제학적 접근이 견지하고 있는 집단 간의 잠재적인 경제적 갈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입된 인력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내국인의 반감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한다(Campbell, 1965).

이 이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들과는 다른 혈통, 종교,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 집단의 유입은 기존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현재 내국인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집단 간제로성 경쟁의 인식이 집단 위협이라는 믿음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결국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귀결되는 반면, 집단 내부의 통합은 강화되는 것이다(Sidanius and Pratto, 1999). Blalock(1967)은 실질적 경쟁(actual competition)과 인지된 경쟁(perceived competition)을 분석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실질적 경쟁은 희소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이러한 희소 자원들의 분배를 규제하는 시장기제와 같은 거시 또는 중범위 수준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집단 간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인지된 경쟁은 주관적으로 이해된 외부집단의 사회경제적 위협이 다수집단 구성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외부집단에 대한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시각을 형성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저숙련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과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지만 일관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제시되고 있는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들은 경제학적 접

근의 결론이 다소 성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임금과 고용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이민자 유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Card 1990; Hunt 1992; Gang and Rivera-Batiz 1994; Zimmerman 1995; Borjas 2003; Dustman 외, 2004; Hartog and Zorlu 2005)<sup>1)</sup>.

이민의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회문화적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들 수 있는데, 이 이론은 외부집단에 대한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들이 내부집단 구성원 간 우호주의와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Tajfel 1982; Tajfel and Turner 1986). 개인들은 자신들의 내부집단이 외부집단에 비해 우월하다고 여기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동일시화와 같은 심리적 과정을 통해 내부집단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특징들을 부여하게 되고, 사회적 반동일시화를 통해 외부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정체성 이론은 이민자 범죄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 보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비록 이민자들이 내국인들보다 범죄율이 낮지만 이민자들이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믿음은 범죄의 책임을 외부집단에 전가함으로써 내국인 집단성원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두 집단 간의 격차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특성들을 부각시켜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특성들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질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 인력의 유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이 외국인의 동화에 대해 혐오하게 된 것의 한 원인으로 에도막부시대(1603~1867)에 실시한 쇄국(さこく, 鎖國) 정책을 들기도 한다(Itoh, 1998). 이 시기에는 일부 무역항을 제외하고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금하였다. 비록 완전봉리를 명시하는 법률이 존재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항구도 시에서도 외국인들은 분리되어 일본인들과 교류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역사적

1) 최근의 이러한 연구들은 헤셔-오린모형(Heckscher-Ohlin model)과 같은 개방경제모형(open-economy models)에 기반하고 있다. 개방경제모형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의의 간명성을 위해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Leamer와 Levinsohn(1995), Brezis와 Krugman(1993)을 참고하기 바란다.

상황이 일본인론(nihonjinron)이라는 일본인의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과 국수주의를 고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Oguma, 2002). Richey(2010)는 이러한 쇄국정책과 일본인론이 결합되어 일본인들이 이민자와의 동화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일본인의 동질적 자아상은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Tsuda, 1998).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소위 니케이진(Nikkeijin, 日系人)으로 불리는 남미출신의 일본계 후손들이 단기체류 노동자로 일본에 많이 유입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추진 배경에는 이들이 다른 국가의 이주노동자보다 민족적·문화적 유사성이 강하기 때문이었다(Laszlo, 2002; Tsuda, 1999).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 역시 일본과 같은 맥락이다. 즉,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ASEAN 국가들의 노동력 유입은 허용하는 반면, 중국 본토의 인력 유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 국민들이 스스로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 본토인이 외국인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ASEAN 국가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만인들과 사회적으로 혼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Keneko, 2009).

이처럼 전반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리감은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교육수준 또는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낮아지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논의들은 교육이 개인들의 민족/인종에 대한 높은 관용 수준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선호와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Gang, Rivera-Batiz과 Yun(2002)은 대부분의 서구교육시스템은 개인의 사회적 관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설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Chandler와 Tsai(2001)은 교육이 외래문화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사고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범지구적 연결망을 생성시킴으로서 사회적 관용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한다.

Hainmueller와 Hiscox(2007) 역시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 교육효과의 주된 구성요소는 외국인이나 외국문화의 가치와 믿음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정체성의 추구가 이민자에 대한 반감의 원인이 되는 반면, 교육이나 기술수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각 내부집단의 정체성이 공정성, 평등이나 사회 정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같은 태도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별로 또는 특정 국가의 집단별로 서로 다른 사회정체성이나 사회문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Likata and Klein, 2002).



이와 같이 근래에 들어 개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모두에 주목하고 있으며(송유진, 2008), 각각의 요인들이 국가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강조된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형성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다양한 접근과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이동에 있어서 외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송출국의 경향이 강하였고, 유입국으로의 부상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송유진, 2008).

비단 동아시아 국가 간 비교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처해있는 인권과 고용환경에 대한 접근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조차도 소수에 국한되어 있다(김석호·김상욱·한지은, 2009; 설동훈, 1997; 오계택·이정환·이규용, 2007; 황정미 외, 2007 등).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이명진 외, 2010; 조동기, 2010). 이 역시 가치관과 교육수준이 이주노동자 태도와 긍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규명했을 뿐,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이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 교육계층 내에서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국민의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각 교육수준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음 단계로 이행할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능수준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간의 연관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전통적 경제학적 접근의 설명방식을 보완하고, 분석적으로 직능수준이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모형

본 연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의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기술수준(교육)과 세계화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ASS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2008년의 주제인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에는 동아시아 타국의 문화소비, 길흥에 대한 인식, 유교적 덕목, 사회적 정체성, 문화예술기호, 사고 지향, 국외접촉,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 문화적 국수주의, 사회적 연결망 등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기술수준(교육)과 세계화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제에 잘 부합되는 자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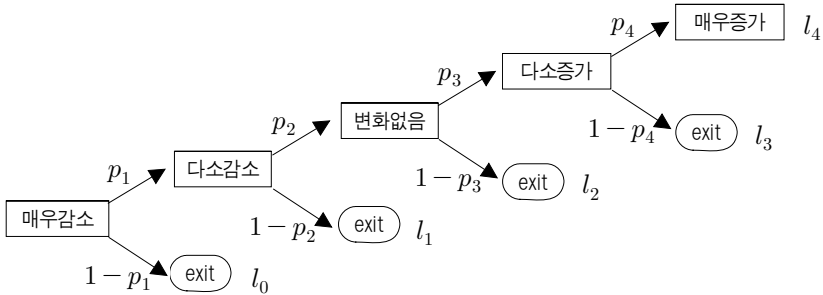
국가 간 비교에서 중국을 제외한 이유는 중국이 외국 인력의 유입국으로서의 경향이 강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유출국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각 국가별로 한국 1,508명, 일본 2,160명, 그리고 대만 2,067명이 조사되었는데, 한국을 제외한 3개국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였기에 이후에 논의되는 결과들은 가중치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일부 문항에서 무응답이나 응답거부 등의 이유로 결측된 사례가 존재하여 이들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용된 각 국가별 표본은 한국 1,418명, 일본 1,808명, 그리고 대만 1,879명이다.

위의 이론적 논의에서 특정 교육수준의 집단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의 수준은 각 태도의 수준별 이행확률의 구성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교육수준에 따른 각 태도의 수준별 이행확률로 분해할 수 있는 모형의 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가능케 하는 분석방법이 순차로짓모형(sequential logit model)이다. 이 모형은 Mare(1981)가 제안한 모형에 기초한 것으로, 순차반응모형(sequential response model), 연속비로짓(continuation ratio logit), 내포이분모형(model for nested dichotomies), 또는 메어모형(Mare model)이라고도 불리운다(Agresti, 2002; Fox, 1997; Maddala, 1983; Shavit and Blossfeld, 1993).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각 해당 국가별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 수준별 이행과정에 대한 가상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는 총 4개의 이행과정을 경험한다. 만약 어떤 내국인의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대한 태도가 ‘변화없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처음 두 개의 이행과정을 통과할 위험(at risk)’에 있었지만 세 번째 이행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어떤 내국인  $i$ 가 이행과정  $k$ 를 통과할 확률은 아래의 (식 1)에서  $\hat{p}_{ki}$ 이다.  $\lambda_k$ 는 이행과정  $k$ 에서의 세계화에 대한 태도의 효과,  $\alpha_k$ 는 상수, 그리고  $\beta_k$ 는 통제

<그림 1> 외국인근로자 증가 태도의 이행과정에 대한 가상모형



변수  $x_i$ 의 효과를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개인이 이전 이행과정을 통과하였는가는  $pass_{k-1i}$ 라는 지표변수로 표현된다<sup>2)</sup>.

$$\begin{aligned}
 \hat{p}_{1i} &= \frac{\exp(\alpha_1 + \lambda_1 global_i + \beta_1 x_i)}{1 + \exp(\alpha_1 + \lambda_1 global_i + \beta_1 x_i)} \\
 \hat{p}_{2i} &= \frac{\exp(\alpha_2 + \lambda_2 global_i + \beta_2 x_i)}{1 + \exp(\alpha_2 + \lambda_2 global_i + \beta_2 x_i)} \quad \text{if } pass1_i = 1 \\
 \hat{p}_{3i} &= \frac{\exp(\alpha_3 + \lambda_3 global_i + \beta_3 x_i)}{1 + \exp(\alpha_3 + \lambda_3 global_i + \beta_3 x_i)} \quad \text{if } pass2_i = 1 \\
 \hat{p}_{4i} &= \frac{\exp(\alpha_4 + \lambda_4 global_i + \beta_4 x_i)}{1 + \exp(\alpha_4 + \lambda_4 global_i + \beta_4 x_i)} \quad \text{if } pass3_i = 1
 \end{aligned} \tag{식 1}$$

외국인근로자 증가태도의 최고 기대수준을 *ATIMout*이라고 할 때, 이것은 각 태도의 이행단계별 이행확률(*ATIMpro*)들의 가중합(weighted sum)이라 할 수 있고, 각 가중치들은 위험율(proportion at risk), 분산(variance), 그리고 이행과정 통과를 통해 얻게 되는 태도수준의 기대이익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고려한 분해방법은 기존의 논의들과는 달리 *ATIMout*와 *ATIMpro*를 통합한 논의가 가능하고, 후자의 분포가 변화함에 따른 전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2) 이 모형은 모든 내국인들이 이러한 이행단계를 통과할 위험을 가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의 이행여부에 대한 각각의 결정들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각 이행과정은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할 때 적합한 하위표본에 대해 각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행확률을 추정한 것과 동일하다.

$$ATIMout_i = \sum_{k=1}^K (weight_{ki} \times ATIMpro_k) \quad (식 2)$$

$$weight_{ki} = risk_{ki} \times variance_{ki} \times gain_{ki}$$

## 2.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인 이주노동자의 증감에 대한 태도는 “귀하는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감소하기를 바라십니까?”라는 문항과 관련하여 ‘① 매우 증가하기를 바랍’부터 ‘⑤ 매우 감소하기를 바랍’이라는 5점 서열척도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증가의 긍정적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변수를 역점수화하여 이용하였다.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직능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직능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직능수준에 대한 대리변인(proxy variable)으로 현재 직업이나 교육수준을 이용한다. 먼저 직업을 특정 개인의 직능수준을 측정하는 대리변인으로 할 경우를 살펴보자. EASS자료는 ISCO88(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의 분류기준에 따라 각 국가별 취업자의 직업을 분류하고 있다<sup>3)</sup>. 특히, 대분류 수준에서 직능수준을 분류할 경우, 단순노무종사자는 직능수준이 1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는 직능수준 2에 해당되며,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직능은 3 수준이며,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4의 직능수준을 갖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그리고 군인의 경우에는 직능수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연구자에 따라서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에는 직능수준을 5로 분류하고 군인에 해당되는 직종은 제외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O'Rourke and Sinott 2001; Hainmueller and Hiscox 2007).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직능수준을 분류할 경우 과연 의회의원, 고위

3) ISCO88의 직업분류의 기본구조는 수행되는 작업 혹은 직무(Work performed or Job)의 종류와 직능(Skill)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주어진 직무의 과업이나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직능수준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직능수준은 교육 범주들과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나타나는 수준들에 의한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필요한 직능은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도 습득가능한데, ISCO-88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입직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능이 아니라 직업의 과업이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능이다. 다음으로 직능의 전문성(Skill Specialization)은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뿐만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물질, 사용된 도구나 기계, 요구되는 지식의 영역에 의해 정의된다.

임직원 및 관리자가 전문가에 비해 직능수준이 높은 것인지, 군인을 제외함에 따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사 당시 실업자를 포함한 미취업자가 제외되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표본선택편의의 문제로 인하여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직능수준을 측정하는 또 다른 대리변인으로서 교육수준을 이용하기도 한다(Scheve and Slaughter 2001; Mayda 2006; Hainmueller and Hiscox 2007). 하지만 교육수준을 직능수준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이용할 경우 역시 국가별로 상이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EASS는 동아시아 4개국에서 각각 측정된 교육수준을 교육연수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4개국 모두 유사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교육과정별 수학년수 역시 유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의 직능수준을 교육연수로 조작화하였으며, 또한 각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이행확률 분해에 있어서는 한국의 교육과정별 평균 수학년수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등으로 구분하여 나머지 두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국가/지역간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해당 국가의 (1) 경제, (2) 일자리, (3) 환경에 '① 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⑦ 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 역시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이주노동자의 증가의 긍정적 태도에

<표 1> 동아시아 3개국의 EASS 자료에 대한 변수정의 및 기초통계량

| 구 분            | 단위: 평균(범위)          |                     |                    |
|----------------|---------------------|---------------------|--------------------|
|                | 한국                  | 일본                  | 대만                 |
| 〈중속변수〉         |                     |                     |                    |
|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 2.913 (1~5)         | 2.605 (1~5)         | 2.399 (1~5)        |
| 〈설명변수〉         |                     |                     |                    |
| 교육수준(교육연수)     | 12.825 (6~18)       | 12.186 (0~23)       | 11.718 (0~23)      |
| 세계화에 대한 태도     | -0.337 (-3.26~2.00) | -0.427 (-3.26~2.00) | 0.071 (-3.26~2.00) |
| 〈통제변수〉         |                     |                     |                    |
| 성별(남성=1)       | 0.507 (0~1)         | 0.465 (0~1)         | 0.502 (0~1)        |
| 연령             | 51.168 (20~89)      | 43.988 (18~90)      | 43.266 (18~94)     |
| 주관적 계층의식       | 5.137 (1~10)        | 4.664 (1~10)        | 5.136 (1~10)       |
| 주관적 거주지(대도시=1) | 0.800 (0~1)         | 0.441 (0~1)         | 0.460 (0~1)        |
| 취업여부(취업=1)     | 0.652 (0~1)         | 0.594 (0~1)         | 0.672 (0~1)        |
| 자국 친밀도(친밀=1)   | 0.963 (0~1)         | 0.881 (0~1)         | 0.879 (0~1)        |
| 동아시아 친밀도(친밀=1) | 0.331 (0~1)         | 0.407 (0~1)         | 0.121 (0~1)        |
| 표본수            | 1,418               | 1,808               | 1,879              |

주: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대만에 대한 기초통계량 값은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역점수화하여 이용하였다.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이 척도를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이용하기 위해 Gorsuch(2003)의 제안에 따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요인점수가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 점수로 간주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는 직능수준이나 세계화에 대한 태도 이외에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다른 가치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 규모 등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변인으로서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정의와 기초통계량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VI. 분석결과

동아시아 3개국의 이주노동자 증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순차로짓모형을 적용한 전체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교육수준과 세계화에 대한 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 첫 번째 이행단계인 '매우 감소'에서 '다소 감소 이상'의 태도를 가짐에 있어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행단계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보다는 교육수준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나머지 두 단계와는 달리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수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첫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 교육수준의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화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 네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 교육수준이 유의미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분석결과는 각 이행단계에서 교육수준이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갖는 전반적인 효과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육계층별로 각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3개국의 교육수준별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각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만은 이러한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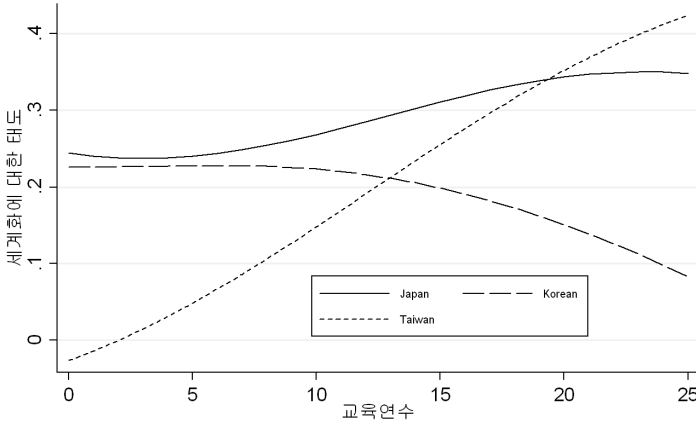
<표 2> 동아시아 3개국에 대한 순차로짓모형 분석결과

|                                  | 한국    |         | 일본   |       | 대만      |                       |
|----------------------------------|-------|---------|------|-------|---------|-----------------------|
|                                  | Odds  | (SE)    | Odds | (SE)  | Odds    | (SE)                  |
| <b>&lt;매우 감소 vs 다소 감소 이상&gt;</b> |       |         |      |       |         |                       |
| 성별(남성=1)                         | 0.570 | (0.111) | **   | 0.894 | (0.205) | 0.868 (0.105)         |
| 연령                               | 0.979 | (0.007) | ***  | 0.983 | (0.010) | * 0.999 (0.005)       |
| 주관적 계층의식                         | 1.159 | (0.066) | **   | 1.095 | (0.081) | 1.076 (0.038) *       |
| 주관적 거주지(도시=1)                    | 0.997 | (0.189) |      | 1.056 | (0.319) | 0.758 (0.092) *       |
| 자국 친밀도(친밀=1)                     | 2.112 | (0.515) | ***  | 2.114 | (0.935) | * 1.017 (0.181)       |
| 동아시아 친밀도(친밀=1)                   | 0.726 | (0.140) | *    | 1.580 | (0.407) | * 1.798 (0.402) **    |
| 취업여부(취업=1)                       | 0.887 | (0.173) |      | 0.908 | (0.247) | 0.700 (0.096) **      |
| 교육수준(교육연수)                       | 0.980 | (0.028) |      | 1.128 | (0.082) | * 1.116 (0.020) ***   |
| 세계화에 대한 태도                       | 3.455 | (0.969) | ***  | 2.063 | (1.380) | 0.957 (0.108)         |
| 교육수준 X 세계화태도                     | 0.937 | (0.021) | **   | 0.993 | (0.056) | 1.027 (0.011) **      |
| <b>&lt;다소 감소 vs 현황유지 이상&gt;</b>  |       |         |      |       |         |                       |
| 성별(남성=1)                         | 1.156 | (0.140) |      | 1.025 | (0.133) | 1.513 (0.179) ***     |
| 연령                               | 1.006 | (0.005) |      | 0.988 | (0.004) | ** 0.992 (0.005) *    |
| 주관적 계층의식                         | 1.092 | (0.042) | **   | 1.069 | (0.042) | * 1.083 (0.039) **    |
| 주관적 거주지(도시=1)                    | 1.196 | (0.147) |      | 0.781 | (0.131) | 0.696 (0.083) ***     |
| 자국 친밀도(친밀=1)                     | 0.948 | (0.181) |      | 0.395 | (0.170) | * 1.082 (0.197)       |
| 동아시아 친밀도(친밀=1)                   | 1.025 | (0.125) |      | 1.419 | (0.195) | ** 1.562 (0.277) **   |
| 취업여부(취업=1)                       | 0.858 | (0.106) |      | 1.034 | (0.158) | 0.637 (0.085) ***     |
| 교육수준(교육연수)                       | 1.047 | (0.021) | *    | 1.016 | (0.034) | 1.081 (0.020) ***     |
| 세계화에 대한 태도                       | 0.902 | (0.224) |      | 1.699 | (0.733) | 0.925 (0.138)         |
| 교육수준 X 세계화태도                     | 1.026 | (0.020) |      | 1.006 | (0.034) | 1.029 (0.012) **      |
| <b>&lt;현황유지 vs 다소 증가 이상&gt;</b>  |       |         |      |       |         |                       |
| 성별(남성=1)                         | 1.453 | (0.239) | *    | 1.760 | (0.246) | *** 1.560 (0.250) *** |
| 연령                               | 1.015 | (0.006) | **   | 1.002 | (0.005) | 0.994 (0.006)         |
| 주관적 계층의식                         | 1.051 | (0.057) |      | 0.983 | (0.044) | 1.093 (0.055) *       |
| 주관적 거주지(도시=1)                    | 1.348 | (0.231) | *    | 0.612 | (0.095) | ** 0.757 (0.128) *    |
| 자국 친밀도(친밀=1)                     | 0.702 | (0.183) |      | 0.876 | (0.288) | 1.559 (0.403) *       |
| 동아시아 친밀도(친밀=1)                   | 1.199 | (0.200) |      | 1.471 | (0.204) | ** 1.364 (0.289)      |
| 취업여부(취업=1)                       | 0.843 | (0.142) |      | 0.804 | (0.132) | 1.069 (0.188)         |
| 교육수준(교육연수)                       | 1.058 | (0.029) | *    | 1.115 | (0.035) | *** 1.063 (0.027) **  |
| 세계화에 대한 태도                       | 1.285 | (0.470) |      | 1.480 | (0.793) | 0.906 (0.221)         |
| 교육수준 X 세계화태도                     | 0.997 | (0.027) |      | 1.021 | (0.041) | 1.029 (0.019)         |
| <b>&lt;다소 증가 vs 매우 증가&gt;</b>    |       |         |      |       |         |                       |
| 성별(남성=1)                         | 1.566 | (0.650) |      | 1.017 | (0.417) | 0.908 (0.277)         |
| 연령                               | 0.994 | (0.016) |      | 0.958 | (0.017) | ** 0.990 (0.011)      |
| 주관적 계층의식                         | 1.102 | (0.139) |      | 0.901 | (0.122) | 1.055 (0.119)         |
| 주관적 거주지(도시=1)                    | 0.583 | (0.258) |      | 1.519 | (0.723) | 1.072 (0.369)         |
| 자국 친밀도(친밀=1)                     | 0.880 | (0.539) |      | 0.190 | (0.124) | ** 0.997 (0.509)      |
| 동아시아 친밀도(친밀=1)                   | 1.169 | (0.531) |      | 2.185 | (0.918) | * 1.350 (0.482)       |
| 취업여부(취업=1)                       | 1.767 | (0.777) |      | 1.532 | (0.769) | 1.843 (0.733)         |
| 교육수준(교육연수)                       | 0.838 | (0.052) | *    | 0.921 | (0.098) | 0.979 (0.051)         |
| 세계화에 대한 태도                       | 0.638 | (0.551) |      | 0.834 | (1.585) | 0.568 (0.313)         |
| 교육수준 X 세계화태도                     | 1.065 | (0.074) |      | 1.051 | (0.137) | 1.050 (0.042)         |

주: 1) \* p<0.10, \*\* p<0.05, \*\*\* p<0.01

2)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대만은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그림 2> 동아시아 국가별 교육수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계화태도의 효과 비교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별로 교육수준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각 단계별 이행확률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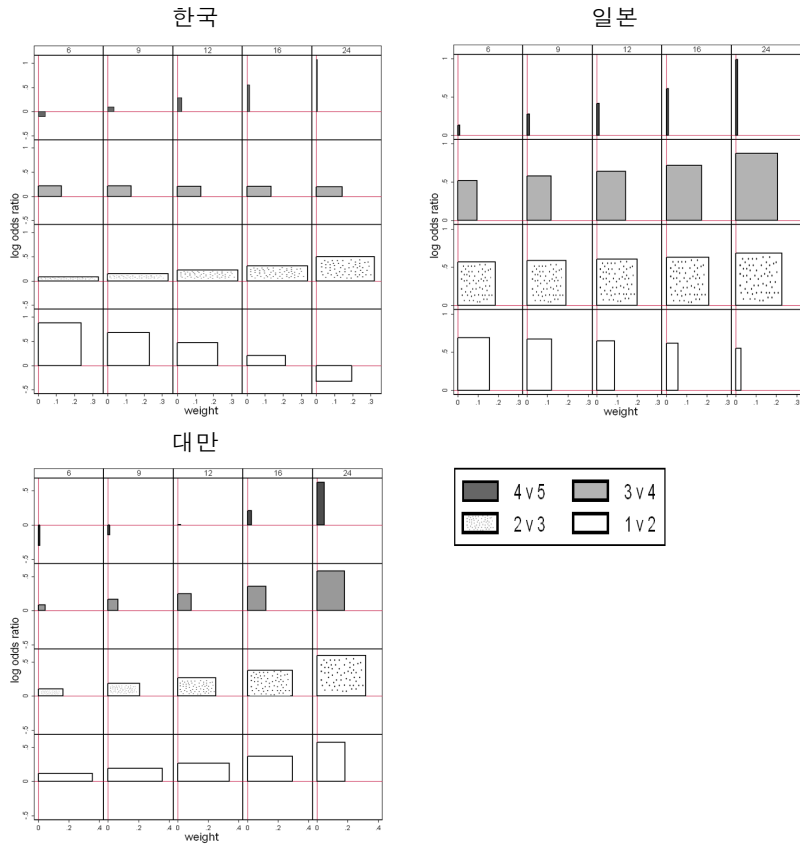
이러한 이행확률은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 각 이행단계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반영한다. 각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는 각 이행과정별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며, 특정 이행단계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클 경우 그 이행단계가 각 교육수준의 전체 이주노동자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3>은 각 국가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최고기대수준을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첫 번째(‘매우 감소’에서 ‘다소 감소’)와 두 번째(‘다소 감소’에서 ‘변화 없기’를 바람) 이행과정이 모든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주된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수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한 태도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첫 번째 이행과정의 비중이 큰 반면, 고학력일수록 두 번째 이행과정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학력수준별로 각 이행과정에 대해 대칭적인 증감현상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학력층의 이주노동자 태도 형성에 첫 번째 이행단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행단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대만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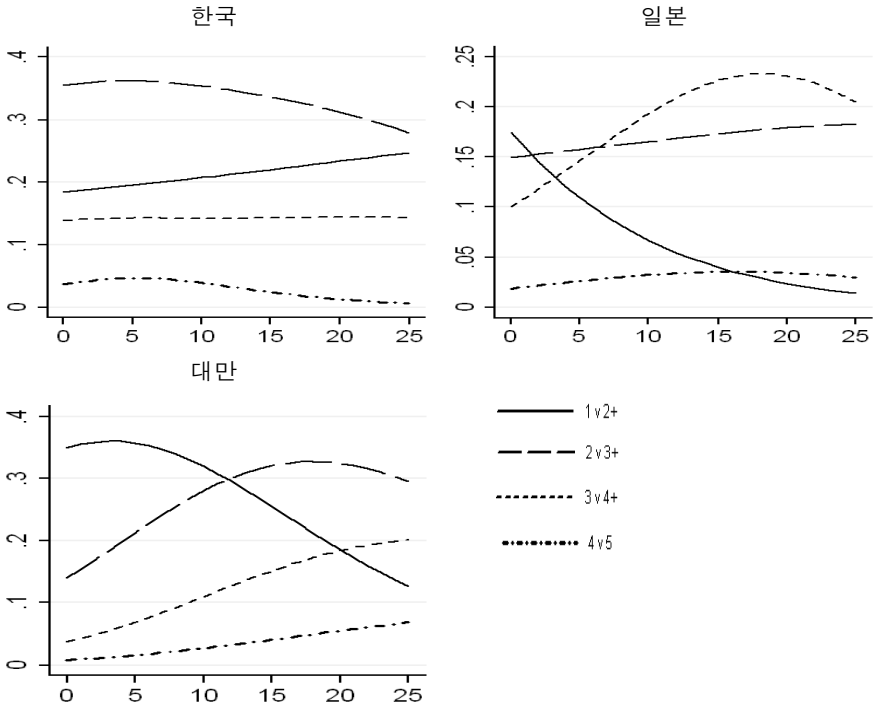
<그림 3> 동아시아 국가별 교육수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의 최고기대수준 분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행단계가 각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형성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각 국가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이행단계별 상대적 기여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계층별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교육단계별 이행과정의 기여도인 가중치를 살펴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 교육계층에 걸쳐 두 번째 이행과정인 '다소 감소'에서 '변화 없기'를 바라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두 번째 이행단계의 가중치는 감소하고 첫 번째 이행단계인 '매우 감소'에서 '다소 감소'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기존 연구

<그림 4> 동아시아 국가별 교육수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태도의 이행과정 가중치



에서 직능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논의와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물론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한 태도가 교육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는 편이 적당할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의 경우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행과정이 이주노동자의 태도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각 이행과정의 영향력이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즉 저학력층의 경우 첫 번째 이행과정의 가중치가 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 이행과정의 가중치는 감소하는 반면, 두 번째 이행과정의 가중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저학력층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 증가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고학력층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주목할 점은 <그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아, 세 번째 이행('변화 없기'를 바람에서 '다소 증가')에서 교육계층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한국과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들 단계의 영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대만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저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들이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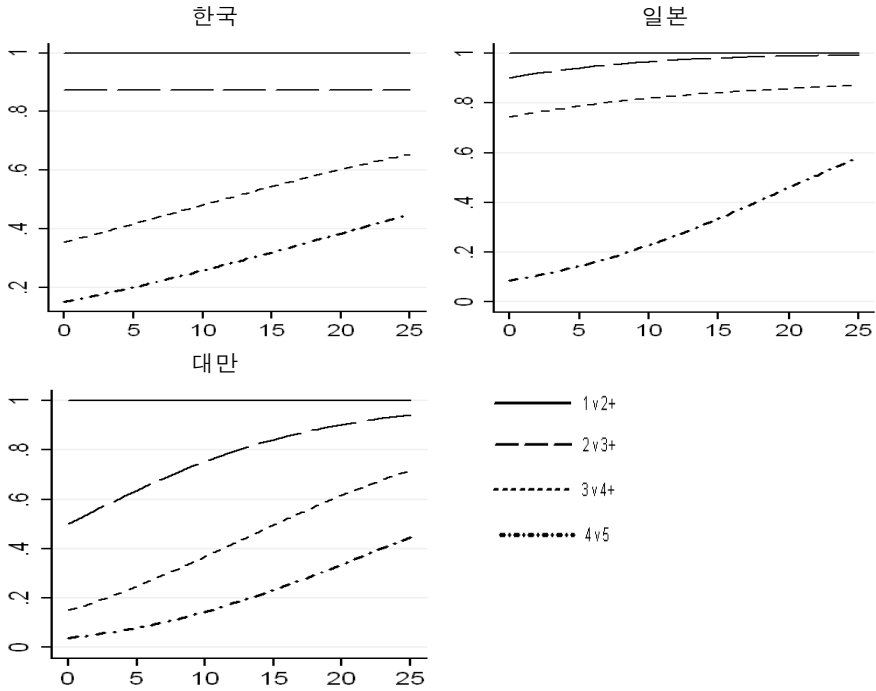
앞서 일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각 이행과정의 가중치에서도 이 경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즉, 한국과 대만과는 달리 두 번째 이행과정과 세 번째 이행과정('변화 없기'를 바람에서 '다소 증가')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첫 번째 이행과정에서는 저학력층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갖지만, 학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는 대만의 경우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다소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 수준정도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 강하다. 또한 전반적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다소 높았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저학력 계층들은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 제시된 각 이행과정  $ATIM_{pro}$  별로 부여된 가중치의 변화는 이주자에 대한 교육수준별 분포에 있어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ATIM_{out}$ 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주자태도의 주변분포에 있어서의 변화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중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성분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연구모형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들 세 가지 성분들은 (1) 각 이행과정에서 위험에 있을 사람들의 비율, (2) 이행과정을 통과할 사람들의 비율이 50%에 가까운 정도, 그리고 (3) 해당 이행단계를 통과한 사람과 탈락한 사람들의 기대 출산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5〉-〈그림 7〉과 같다.

〈그림 5〉는 각 이행과정의 가중치를 구성하는 첫 번째 성분인 위험률 보여 준다. 이것은 특정 이행과정을 통과할 '위험(at risk)'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율(predicted propor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 첫 번째 이행과정에서 이 비율은 1이다. 두 번째 이행과정에서는 첫 번째 이행과정을 완료한 사람들의 비율인  $\hat{p}_{1i}$ 이 된다. 세 번째 이행과정에서는  $\hat{p}_{1i}\hat{p}_{2i}$ 로 두 번째 이행과정을 마친 이들의 비

<그림 5> 동아시아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태도의 이행과정 가중치 분해결과: 위험율



율이 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이행과정을 통과할 위험에 있을 때, 이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인철, 2009).

한국의 경우, 두 번째 단계인 '다소 감소'에서 '변화 없기'라는 이행과정에 있을 위험률이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육계층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비록, 세 번째와 네 번째 이행단계에서 고학력자들의 위험률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이는 앞서 <그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전 교육계층에 걸쳐 두 번째 이행과정이 여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행과정보다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이행과정의 위험률이 0.8이상인 한국과 비교할 때 저학력층의 경우에는 0.5-0.8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결국 대만의 경우 저학력층에서 두 번째 이행과정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비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만큼 이주노동자

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행과정에서의 위험률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보면, 직능수준이 낮은 저학력층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찬성하는 목소리가 그 만큼 커지지만 앞서 <그림 3>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행과정의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 번째 이행과정의 위험률 역시 높다. 또한 네 번째 이행과정의 경우 한국이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저학력층에서는 그 위험률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과는 달리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위험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수용하는 일본사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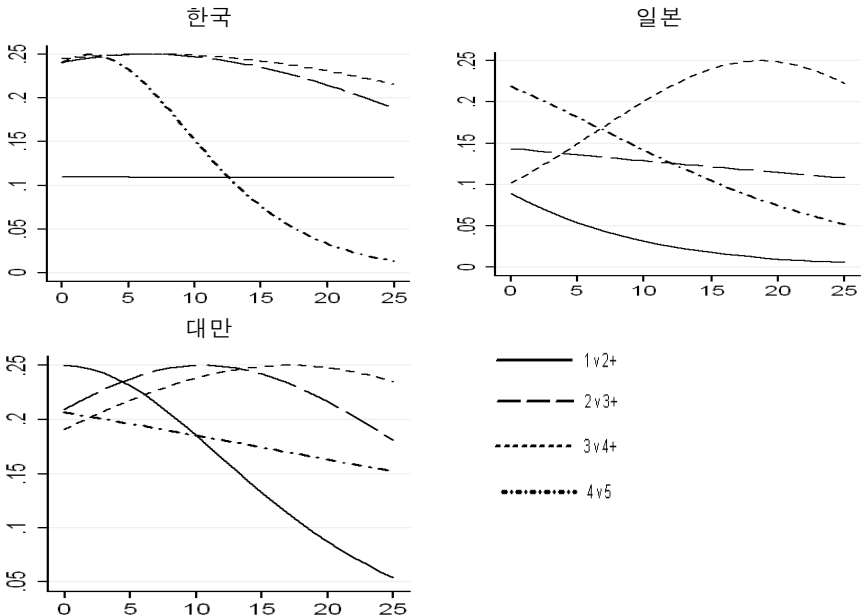
두 번째 성분은 <그림 6>에 제시된 해당 이행과정을 통과한 사람과 탈락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지표변수의 분산(variance)인  $\hat{p}_{ki}(1-\hat{p}_{ki})$ 이다. 이 분산은 통과할 기대확률의 함수로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거나 탈락할 경우 가장 작고, 통과확률이 0.5일 때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여기서 제시된 이행과정에 따른 분산을 살펴보면, 각 국가별로 완전히 상이한 형태를 나타내며, 각 국가별 이행과정별 가중치의 차이는 분산에서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이행과정의 가중치를 구성하는 마지막 세 번째 성분은 <그림 7>에 제시된 해당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과 탈락한 사람들의 기대출산수준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만약에 특정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태도의 최고 기대수준에서의 기대이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라면, 이 이행과정이 전체적인 최고 기대수준에 있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산과 기대이득을 앞서 살펴본 위험률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첫 번째 이행단계의 분산이 가장 작고 교육계층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 교육계층의 상당수 사람들이 이 이행단계를 통과함을 의미한다.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행단계의 분산이 전 교육계층에 걸쳐 0.20-0.25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이행단계를 통과할 확률이 0.5 수준 전후에 있다는 것으로 이전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이 해당단계를 통과하는 수가 절반이라는 것을 말한다. 반면, 네 번째 이행단계의 경우에는 정규학력을 받지 않은 경우 0.25수준에 있으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분산이 0에 가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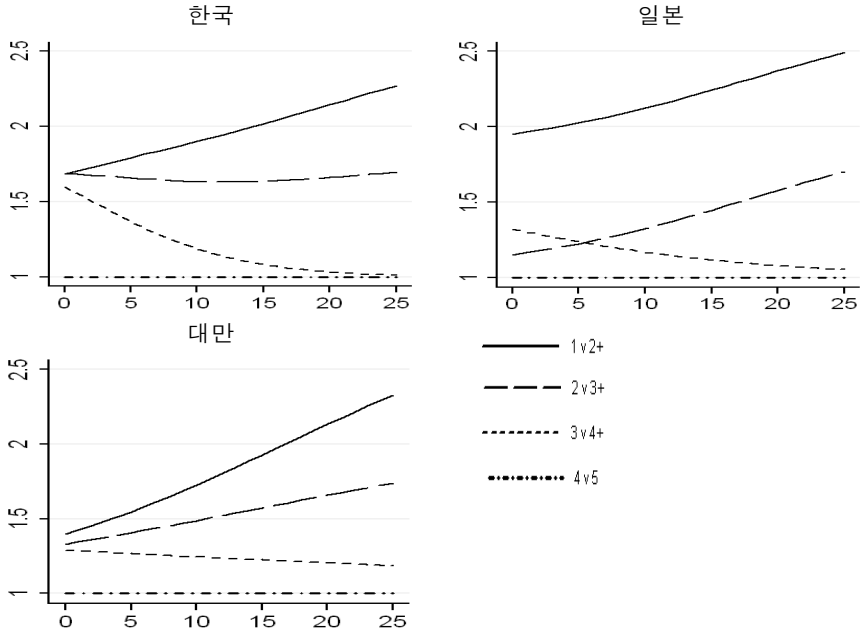
위 모든 사람들이 해당단계를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위험률과 <그림 7>의 기대이득을 고려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행단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형성에 있어 중요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대만 역시 저학력층에서는 모든 이행과정의 분산이 높지만,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첫 번째 이행과정의 분산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산의 경우에는 교육계층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높은 수준의 분산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림 7>에 제시된 기대이득을 고려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행단계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두 번째 이행과정의 기대이득이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학력자들에게는 두 번째 이후의 과정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행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나머지 이행단계와는 달리 세 번째 이행단계의 분산이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위험률 역시 높은 수준이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단계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6> 동아시아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태도의 이행과정 기종치 분해결과: 분산



<그림 7> 동아시아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태도의 이행과정 가중치 분해결과: 기대이득



##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외국인의 국제이주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까지 지배적이었던 연구결과는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고용과 같이 노동시장경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반이주노동자정책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이민의 분배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제적 경쟁의 위협 때문에 그러한 반감이 형성되는 것인가를 재검토해보아야 인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경제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가치나 신념의 문제로서 교육수준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한 태도가 교육수준과 세계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3개국의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계화에 대한 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각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세계화에 대한 태도의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세계화에 대한 태도의 효과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별로 교육수준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각 단계별 이행확률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계층별로 이행과정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발견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만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서 직능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원하는 경향이 다소 많았지만,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 않아 일본이나 대만과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가 교육수준이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국가 간 비교의 시각에서 살펴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론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교육수준과 세계화에 대한 인식에 따른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단일한 이론적 틀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세 국가 간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 경제적 환경, 이주노동의 역사와 경험, 외국 인력 정책, 국가 정체성 등이 거론될 수 있겠으나 여전히 교육수준과 세계화 인식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일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다만 세 변수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기존 연구보다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둘째, 순차로짓모형의 적용방법상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순차로짓모형에 대한 Cameron과 Heckman(1998)의 비판과 관련된다. 그들은 순차로짓모형이 각 이행과정을 통과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현실을 단순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 편의 추정량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찰되지 않은 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 한계가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사회학적 함의를 훼손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동아시아 3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방향과 정도에 있어서도 기존 경험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각 교육수준별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수행될 내국인의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석호·김상욱·한지은 (2009) “Social Distance between Foreign Workers and Koreans: From Foreign Workers’ Viewpoint” 《한국인구학》 32(2): 115-140.
- 송유진 (2008) “한국, 대만, 일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1(2): 1-20.
- 설동훈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노동문제논집》 13: 131-158.
- 신인철 (2009) “출산이행과정과 출산수준에 대한 교육 및 취업의 효과” 《인구와 사회》 5(2): 79-105.
- 오계택·이정환·이규용 (2007)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명진·최선훈·최유정 (2010)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혜진 (2009) “일본의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제도와 이주노동자운동: 제도와 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논문집》 1289-1308.
- 이구치야스시·란커정·팡앵퐁 (2003) “아시아지역 국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6): 44-61.
- 조동기 (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3(3): 1-20.
- 챙치유 (2007)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5(8): 4-10.
- 황정미 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Agresti, Alan (2002) *Categorical Data Analysis* 2nd ed. Hoboken, NJ: Wiley-Interscience.
- Blalock, H. M.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s*, New York: Wiley.

- Borjas, George. J. (2003) "The Labor Demand Curve Is Downward Sloping: Reexamin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1335-74.
- Brezis, Elize S., and Paul R. Krugman (1993) *Immigration, Investment, and Real Wages*, NBER Working Paper 4563.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ameron, Stephen V. and James J. Heckman (1998) "Life Cycle Schooling and Dynamic Selection Bias: Models and Evidence for Five Cohorts of American Mal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2): 262-333.
- Campbell, Donald T. (1965) "Ethnocentrism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pp. 283-311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13*, edited by David Levin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ard, David (1990) "The Impact of the Mariel Boatlift on the Miami Labor Marke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3(2): 245-57.
- Chandler, Charles R., and Yung-Mei Tsai (2001) "Social Factors Influencing Immigration Attitude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General Social Survey" *Social Science Journal* 38(2): 177-88.
- Chen, Mei-ying (2003) "The Increasing Presence of Chinese Migrants in Japan" pp. 39-52 in *Transnational Migration in East Asia* edited by S. Yamashita, M. Minami, D. W. Haines and J. S. Eades, Osaka: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 \_\_\_\_\_ (2010) "Becoming Taiwanese: Self-Perception of the New Taiwanese Immigrant Females" *IJAPS(International Journal of Asia Pacific Studies)* 6(2): 1-22.
- Dustmann, Christian, Francesca Fabbir, Ian Preston, and Jonathan Wadsworth (2004) *The Local Labour Market Effects of Immigration in the UK* Unpublished manuscript, United Kingdom Home Office.
- Fox, John (1997) *Applied Regression Analysis, Linear Models, and Related Methods*, Thousand Oaks: Sage.
- Gang, Ira N., and Francisco L. Rivera-Batiz (1994) "Labor Market Effects of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Substitution vs. Complementari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7(2): 157-75.
- Gang, I. N., F. L. Rivera-Batiz and M.-S. Yun. (2002) *Economic Strain, Ethnic Concentration and Attitudes towards Foreigners in the European Union*,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Rutgers University.

- Gorsuch, R. L. (2003) "Factor Analysis" pp. 143-164 in *Handbook of psychology: Vol 2,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edited by J. A. Schinka & F. Velicer, Hoboken, NJ: John Wiley.
- Hainmueller, Jens and Hiscox, Michael J., (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2): 399-442
- Hartog, Joop, and Aslan Zorlu (2005)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Wages in Three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8(1): 113-51.
- Hunt, Jennifer (1992) "The Impact of the 1962 Repatriates from Algeria on the French Labor Marke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5(3): 556-72.
- Kaneko, Kenji (2009) "Foreign Migrants in Taiwan and Japan: A Comparative Analysis" *Asia Journal of Global Studies* 3(1): 22-36.
- Itoh, Mayumi (1998) *Globalization of Japan: Japanese Sakoku Mentality and U.S. Efforts to Open Japan*, New York: St Martin's Press.
- Laszlo, T. (2002)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Japan" *Aging and immigration* 39: 12-15.
- Learner, Edward E., and James A. Levinsohn (1995) "International Trade Theory: The Evidence" pp. 1339-94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 edited by Gene Grossman and Kenneth Rogoff, Amsterdam, The Netherlands: North-Holland.
- Likata, L., and Klein, O. (2002) "Does European Citizenship Breed Xenophobia? European Identification as a Predictor of Intolerance Towards Immigran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2(5): 323-337.
- Maddala, G. S. (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e, Robert D. (1981) "Change and Stability in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1): 72-87.
- Mayda, Anna Maria (2006)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3): 510-30.
- Oguma, Eiji. (2002) *A Genealogy of "Japanese" Self-images*, translated by David Askew. Rosanna: Trans Pacific Press Pty. Ltd.
- O'Rourke, Kevin, and Richard Sinnott (2002) "The Determinants of Individual Trade Policy Preferences: International Survey Evidence" pp. 157-06 In

- Brookings Trade Forum*, edited by Susan M. Collins and Dani Rodrik,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Richey, Sean (2010) "The Impact of Anti-Assimilationist Beliefs on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 197-212.
- Scheve, Kenneth F., and Matthew J. Slaughter (2001) "Labor-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1): 133-145.
- Shavit, Yossi and Hans-Peter Blossfeld, (1993)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Boulder: Westview Press.
- Sidanius, J. & Pratto, F. (1999)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enry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and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S. Worchel and L. W. Austin, Chigago: Nelson-Hall.
- Tsuda, T. (1998) "The Stigma of Ethnic Difference: The Structure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oward Japan's New Immigrant Minority"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4(2), 317-359.
- Tsuda, T. (1999)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he Nationalization of Ethnic Identity among Japanese Brazilian Return Migrants" *Echo* 27(2): 145-179.
- Zimmerman, Klaus F. (1995) "Tackling the European Migration Proble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2): 45-62.

[2011. 3. 2 접수 | 2011. 3. 26 심사(수정) | 2011. 4. 18 채택]

## Decomposition of Educational Effects on Attitudes toward Migrant Workers: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Japan, and Taiwan

*Seokho Kim · Incheol Shin · Byungsoo Kim*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level of education on th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or foreign workers. More specifically, we examine wheth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the level of education and global mind on the attitude among three East Asian countries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controlling other socio-demographic factors in relation to increase in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Using EASS data, we employ sequential logit model to the general attitudes toward immigrant workers into the weighted sum of transition probability within each educational level. One major finding is that there is clear an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attitudes toward foreign workers among three countries. In general, while Japanese and Taiwanese tend to have more open-minded attitudes toward foreign workers as they have higher level of education, Koreans are opposite case that they are little bit more hostile toward to foreign workers with higher level of education. Especially, there is strong positive effect of education on the attitude in Taiwanese case. Another finding is that while there is strong resistance against increase in migrant population in Korea and Taiwan, Japanese respondents want current level of foreign population to remain in the similar level. Our findings imply that there is no one converging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foreign workers which can be applied to any country.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uniqu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to better understand the effect of education on the attitude toward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Also, we conclude that systematic comparative-demographic analyses should be utilized to provide more comprehensive picture of how difference in educational level affects the attitude toward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Key Words:** Immigrants, Foreign workers, Educational level, Perception toward Globalization, Social-cultural approach, Sequential logit model